

##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2호 조성, 연내 1,000억 원 투자 추진

- 민관이 함께 2,592억 원(정부출자 1,500억 원, 민간투자 1,092억 원) 규모의 2호 펀드 조성
- 국내기업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활성화를 위해 펀드 투자 지속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작년 10월 1,580억 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에 이어,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2,592억원 규모의 2호 펀드가 조성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하는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국내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되었고, 관련 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환경부는 해외사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운용 등의 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1호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월 30일에 2,592억 원 규모(정부 출자 1,500억 원, 민간 투자 1,092억 원)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2호의 조성을 완료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8년까지 5년간 3,0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2,000억 원을 유치하여 기존 1호 펀드 및 이번 2호 펀드와 함께 총 5천억 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 2,592억 원 규모의 2호 펀드 구성에 이어, 2025년 중 920억 원 규모의 3호 펀드(프로젝트 펀드)도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작년 1호 사업으로 친환경 암모니아 생산시설 사업에 투자를 승인하였고, 연내 1,000억원 투자 승인을 목표로 투자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가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해 국제협력관은 “급성장하는 전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수주지원단 파견 등 현장 지원까지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녹색산업해외진출TF	책임자	과 장	정명규 (044-201-7560)
		담당자	사무관	안종서 (044-201-7565)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정책금융실	담당자	실 장	홍영탁 (02-6746-7411)

□ **추진배경**

- 전 세계적인 녹색시장 급속 팽창 흐름에 대응하여 정부 주도 펀드 조성을 통한 녹색산업 분야 해외사업 투자 활성화 추진

□ **펀드개요**

- (펀드조성) 정부출자(3,000억원)와 민간투자(2,000억원)를 통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녹색산업 수출기업 투자 지원
  - 해외사업 투자와 PIS펀드(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관리 경험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출자, 펀드 조성

< 펀드 구조안 >



- (투자대상) 최근 급성장하는 순환경제\*, 탄소감축\*\*, 물 산업 등 녹색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 폐배터리 재활용 등    \*\* 매립가스 발전, 바이오가스 생산 등

□ **향후계획**

- 1호펀드('24.10월 조성) 투자 지속
- 2호펀드(2,500억 원, '25년 6월 조성) 투자, 프로젝트펀드(920억 원, '25년 下) 조성